

# “농어촌유학생 지원·수입 만다린 대책을”

제주도, 어제 서귀포시청에서 ‘2026 도민과의 대화’  
시민 “관광객 증가로 하수 처리 포화… 입도세 검토”  
오 지사 “고향사랑기부금 증가세… 입도세 대체 가능”

서귀포시민들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농어촌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서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 만다린 관련 민관 대책기구 운영 등을 요청했다. 또 증가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입도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제주도는 3일 오전 서귀포시 별관 너른마당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양원희 전지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관광객 증가로 도내 8곳의 공공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로, 시설현대화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입도세든 관광세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로 입도세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입도세 형태의 환경보전분담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다시는 제주에 안 간다’는 여론이 형성됐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주에 10만여명이 105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등 증가 추세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0억원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환경기초시설에도 투입할 수 있게 돼 굳이 입도세를 받지 않아도 지속가능

한 제주가 가능할 것이다. 2~3년 정도 추이를 살펴보고겠다”고 했다. 서귀포시 지역을 찾는 농어촌유학생의 증가 속에 가족체류형 유학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농어촌주거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오정철 안덕초등학교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로 국가적 위기인데, 농어촌유학은 지역소멸을 막을 중요한 대책”이라며 “올해 1학기 서귀포시 지역으로 농어촌유학을 올 학생이 53가구, 84명으로 제주지역을 앞질렀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체류형 유학을 희망하는데,

도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읍면 빈집 리모델링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 제주도에서 농촌유학생 주거대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농어촌유학과 관련한 재원의 한계로 고민하다 내놓은 아이디어가 교육청 유류부지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정을 옛 무릉중 부지와 제주도 구좌읍 송당리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만다린 수입에 대응한 민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향전 서귀포시 농민회장은 “농협이 농가에서 생산한 만감류 1만t을 사들이는 매취사업 진행을 발표하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고,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

응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생산자단체에 수급 조절 권한을 드렸고, 농협이 만감류 1만t 매취사업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 검역본부와 식약처에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와 만다린의 잔류농약 검사 필요성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세혁 남주고 총학생 부회장은 하교시간 버스시간 조정을 건의했다. “학생들 대부분 오후 4시10분에 하교하는데 615번 등 3대의 버스가 4시5분에 학교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를 못타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시민들은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원도심 빈 건물 활용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미숙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3일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열린 ‘2026 도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 도, 설 앞뒤 ‘민생경제 안정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등 4개 분야 점검 강화

20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3일 도청 한라홀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서민물가 안정,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소비촉진, 생계안정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농산물 부정 유통 방지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또한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적기 출하를 독려하고 도매가격 동향도 제재할 예정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급 행사를 추진한다.

탐나는전 적립률을 설 명절이 있는 2월 한 달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8개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상한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안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탐나는전 가맹점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을 신속 지원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채무조정자 대상 긴급소액대출 ‘제주흔들론’ 등을 추진한다. 오소범기자

##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 20개 단체 선정

도, 19일까지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까지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생명존중 및 삶의 가치 교육 ▷청소년 외국어 글로벌 챌린지 사업 등 총 3개 영역에서 20개 기관과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

업은 일반평생교육, 차세대리더교육, 직업능력교육, 다문화교육 등 4개 분야의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분야별 지원금은 500만원에서 1200만원 범위다.

신청을 원하는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및 관련 기관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 (710-3824). 오소범기자

##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강화

친환경자동차 중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5일부터 변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가 적용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단, 오전 0시~6시까지 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현재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

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는데, 이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됐다.

제주시는 “변경된 규정으로 완속충전구역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